

桂泉先生の 華甲을 맞이하여

韓 荃 淑

I.

一般사람들은 生의 어려운 문제에 부딪치면 곧 哲學하는 사람을 쳐다본다. 哲學이란 인간이 당면하는 가장 심오하고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막상 철학속에 들어와 보면 마치 數學이 우리의 生과는 직접적으로 아무런 관계도 없는 추상적인 문제를 다루듯이 철학도 인생과는 거리가 먼 추상적 관념적인 것만을 다루는 듯한 느낌을 준다. 그리하여 철학이란 우리에게 가장 절실하고 가장 밀접한 근원적인 문제를 다루는 학이라는 막연한 기대는 어느새 사라지고 철학도 다른 특수과학과 마찬가지로 어떤 특수분야를 다루는 특수한 학과, 더구나 그 특유한 술어를 모르고는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그런 특수한 학과가 되고 만다.

이렇게 보면 철학교수도 예컨대 育種學을 연구하거나 혹은 心理學을 연구하는 교수나 마찬가지로 그저 哲學을 연구하는 하나의 專門人이 되고 만다. 그뿐이 아니다. 사회가 점점 機能 위주로 되어가고 대학이 갑자기 大衆교육장으로 바뀔 때 따라서, 그리고 강의에 몰리고 연구논문에 쫓기고 또 학생지도에 시달리다 보면 캠퍼스 안에서의 철학교수도 별 수 없이 講壇哲學者의 신세를 면하기 어렵게 된다. 그러니 학생들이 볼 때 철학교수도 그저 직업적으로 강의나 면접을 할 뿐, 학생들의 기분은 조금도 헤아려 주지 않고 항상 바쁘시기만 하고 인간미라고는 요만치도 없고 그래서 접근하기가 매우 어려운 분들로 생각되기 쉬운 것이다.

만일에 이런 추리가 사실이라면 이것은 학생들의 너무도 피상적이고 조급한 결론이다. 대개의 경우 학생들이 강의실이나 연구실 등에서의 공적 외적인 접촉을 통해서 본 교수상은 그 교수의 실상과는 매우 거리가 있는 것이 보통이다. 우리 桂泉선생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강의하실 때의 명석한 개념들에 의한 예리한 이론전개와 분명한 그 論旨, 그리고 그 카랑카랑한 음성은 진리 앞에 한치의 양보도 있을 수 없는 준엄한 學者를 그리게 한다.

그러나 바로 옆에서 접해 본 나의 桂泉선생像은 결코 그렇게 理知로만 달리는

딱딱한 분이 아니다. 오히려 학적으로는 인간을 理知主義적으로 해석하는데에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일뿐더러 실제에 있어서 선생은 溫厚하고 円滿하고 情다운 人品의 소유자이다.

내가 선생을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게 된 것은 서울대학이 관악으로 모여 연구실이 바로 이웃방으로 된 1975년 봄부터이니 불과 7년밖에 안된다. 그러나 선생은 나에게 어렸을 때부터 가까이 지내온 선배같이 친밀하게 느껴진다(이것은 나의 일방적인 느낌이다). 그래서 나는 곧잘 사사로운 어려운 일도 상의 올리곤 한다.

桂泉선생은 쓸데 없이 남을 비방하지 않는다. 그리고 남이 싫어하는 일은 결코 하시지 않는다. 그리하여 남에게 폐를 끼치는 일은 될 수 있는대로 피하신다. 그래서 선생은 퇴근차를 안 타신다.

선생의 덕은 대방동이라서 여기 전용의 통근차가 아침 출근 때는 있지만 저녁 퇴근 때는 없다. 그래서 퇴근 때는 다른 노선의 차를 타야만 한다. 그런데 어찌다 늦게 차에 올라 빈 자리가 없으면 이미 자리에 앉아 답소하던 선생들이 일어나서 자리를 양보하는데 이것을 桂泉선생은 험사리 받으시지 못한다. 양보하려는 선생의 입장이 오히려 난처해 질 무렵에 결국 선생께서 앉으시게 되는데 그것이 안스러워서 자꾸 되뇌이신다. 이런 일이 몇번 되풀이 되다가 결국 언제부턴가 桂泉선생은 퇴근차를 아예 외면하고 말았다.

바둑도 그렇다. 그저 마구잡이로 공격하는 일이 없다. 늘 상대방의 실력에 맞춰서 상대해 주시니, 원래 급수가 딸리는 상대라 할지라도 桂泉선생과 두면 마음 폭 놓고 자기 멋대로 둘 수가 있다. 원체 불리하지 않는 한 이쪽의 약점이 나타나자마자 쫓겨오는 그런 잔인한 일은 좀처럼 없는 것이다.

내가 이번에 이 글을 쓰려고 桂泉선생의 略歷을 들여다 보았더니 선생은 大學學歷으로는 나의 꼭 1년 선배이다. 그것도 일제시대 豫科때부터 해방 후의 學部, 그리고 大學院에서 6·25 때문에 중퇴할 때까지 쭉 계속해서이다. 그런데 나는 그때 이 선배님을 전혀 몰랐었다. 선배가 후배를 모르는 일은 왕왕 있지만 후배가 선배를 모르는 일은 좀처럼 없는데 ... 왜 나는 이 선배님을 이렇게도 몰라 뵈었을까? 물론 그것은 교향이 다르고 중학교가 달라서 交友관계가 서로 전혀 다르기 때문이고 더구나 내가 원래 대인관계가 적극적이지 못하고 활발하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또 한편 桂泉선생 자신이 원래 남의 앞에 나서려고 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자기 자랑을 할 궁리만 하는데 이 분은 너무도 겸손하시다. 그 좋은 例가 감투 싫어 하시기도.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감투에

대해서는 거의 반사적인 거부반응을 보이시는 듯 하다. 그러나 세상사란 나타나려고 해서 뜻한대로 나타나는 것도 아니거니와 숨으려고 해서 꼭 그렇게 숨어지는 것도 아니다. 결국 桂泉선생은 哲學會長 등 굴직한 감투를 면할 도리가 없었다. 그러나 그것이 임기제일 때는 할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벗으려고 그렇게도 애를 쓰신다.

II.

내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桂泉선생을 무슨 無骨好人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선생은 그렇게도 너그럽고 부드러운 분이시지만 그렇다고 무엇이든지 다 오냐 오나라고 하시는 것은 아니다. 선생은 不義는 절대로 참지 못하신다. 요새 젊은이들은 어른을 공경할 줄을 모른다. 군중 속에 낀 학생들은 더구나 그렇다. 이런 예의바르지 못한 학생을 선생은 결코 용서하지 않는다. 그리고 동료 친자들 간에도 경우에 어긋나는 일이 있으면 가차없이 나무라신다. 이렇게 桂泉선생은 부드러운 면과 엄한 면을 더불어 가지고 계시다. 선생이 이렇게 유연하면서도 매듭이 분명하고 깨끗하면서도 부드러움을 잃지 않는 품은 꼭 대나무와도 같다.

高炳翹교수는 선비를 「학식이 있고 행동과 예절이 바르며 의리와 원칙을 지키고 관직과 재부를 탐내지 않는 그런 고결한 인품의 사람」이라고 정의내리고 있는데 그러고 보면 桂泉선생이야말로 바로 그런 선비중의 선비라고 나는 생각한다.

「관직과 재부를 탐내지 않는다」는 것은 세속사에 매이지 않고 속된 이해관계를 초탈하여 청렴결백함을 말할 것이다. 桂泉선생이 바로 그런 분이요, 그래서 그분은 俗人과 다른 여러모를 가지고 계시다. 가령 시계를 볼 때 어느 사람같으면 上衣 왼쪽 소매 끝을 약간 올리고 손목시계를 들여다 보는 것이 상례인데 이분은 바지 뒷주머니에서 懷中時計를 꺼내 들여다 보신다. 이 회중시계는 상당히 역사가 오래 된 모양인데 이것을 선생은 손목시계와 바꾸려 하시지 않는다.

양복 입으시는 것도 그렇다. 사실 내가 보기에는 정초 모임 때 바지 저고리에 두루마기를 입으신 모습이 선생께는 제일 어울린다. 그러나 평상시에는 양복을 입으실 수 밖에. 그런데 양복이란 선생의 체구에는 도시 맞질 않는다. 조금은 크든가 또는 작든가 해야 어울리시니 말이다. 겨울이나 되면 벌써 10년은 더 전에 유행하던 두둑한 오바를 걸치시고 八字 걸음으로 寒氣를 뚫고 나가시는 품이 어느 젊은이에 못지 않게 씩씩하시다. 이 「어딘지 좀 비뚤어진 正常」(金元龍, 『老學生의 鄉愁』, p. 88), 여기에 桂泉선생의 멋이 있는 것이다

위에서 高炳翊교수의 선비의 정의가 「학식이 있고」에서 시작하고 있는 것은 學識이 선비이기 위한 첫째 조건이라는 뜻이겠다. 이 조건을 桂泉선생은 哲學博士이며 대학교수이니 쉽게 충족시키고 있다고 하겠는데 사실인즉 이 학식이란 선생에서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선생의 專攻은 現象學임에 틀림 없다. 일제시대 대학 1학년 때 훗설의 Ideen을 읽으셨고 해방되어 대학을 나올 때(1948년 6월) 卒業論文이 現象學에 관한 것이요, 나중에 博士學位論文(1971년 8월)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니 桂泉선생은 현상학의 연구와 그에 관한 논문발표 및 강의를 우리나라에서 문자 그대로 제일 먼저 시작하신 분이다. 그리하여 1978년 2월 韓國現象學會가 創立할 때 그 초대 회장으로 추대되면서 특히 우리나라 현상학 연구의 저변확대에 진력하셨고 1980년 6월에는 독일현상학회가 주최한 世界現象學者大會에 참석하여 우리나라의 현상학 연구의 현황을 세계만방에 알리기도 하셨다.

그런데 선생의 이 現象學 專攻은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이 연구는 哲學史 및 哲學 전반에 걸친 넓고도 깊은 지식을 토대로 한 연구라는 것이 중요하다. 선생은 古典語에 조예가 깊어서 고대철학에 밝으시고 또 늘 학생과 후배들에게 강조하시듯이 古典 — 근세도 포함하여 — 에 넓게 통달하고 계셔서 그 소상하고 치밀한 古代哲學史와 近世哲學史의 강의는 특히 학생들의 인기를 모으고 있다. 그것은 그 복잡한 훗설을 읽을 때 字句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고 정확하게 해석하려는 그 嚴密性이 모든 분야에 대한 모든 연구에서 관철되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桂泉선생의 현상학 연구는 이런 연구태도에서 Platon, Aristoteles, Kant, Brentano 등등 그리고 동양의 經書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밑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귀중한 성과를 올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또 桂泉선생의 원만한 인품의 나타남이라고도 생각된다.

桂泉선생이 벌써 華壽를 맞이하게 되었다. 듣건대 선생은 그 동안 정말로 어려운 고비를 몇 번이나 넘기셨지만 그때마다 선생은 평소의 의연한 자세를 조금도 흐트리지 않으셨다고 한다. 앞으로도 계속 그 선비 기질로 후진 양성과 학문 연구에 정진하시고 또 만수무강하시기를 빌어 마지 않는다.